

인도네시아 전통직물 디자인의 패턴 분석

구 희 경

한양여자대학 섬유디자인과 부교수

Analysis of Pattern for Indonesian Traditional Textile Design

Hee-Kyung Koo

Associate Prof.,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2005. 10. 12. 접수; 10. 28. 채택)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patterns for Indonesian traditional textiles.

Ikat is the resist-dyeing process in which designs are reserved in warp or weft yarns by tying off small bundles of threads with fiber resists to prevent the penetration of dye. Batik is the technique applying a wax resist before dyeing to form a pattern in negative. Ikat and batik are the most renowned textile arts of Indonesia. Patterns are classified as geometric pattern, plant pattern, animal pattern. Also this paper discusses the origins of ikat and batik.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classification and feature extraction of ikat and batik patter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develop competitive pattern design for Indonesian textile market.

Key Words : ikat(이카트), batik(바틱), traditional textile(전통직물), Indonesian pattern(인도네시아패턴), classification(유형화)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 국의 섬유산업계는 섬유쿼터제 폐지라는 대 변혁을 맞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천연직물 분야에서는 아시아의 면·실크 생산국으로부터 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산업으로 첨단하이테크 산업과 자연자원을 그대로 이용한 천연소재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현지 생

산방식 등의 잦은 교류가 예상되는 직물예술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전통 직물문화와 직물패턴을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남북과 동서 교역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인도·중국·이슬람·유럽 등과의 접촉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은 종교적 의미의 상징, 내적인 신앙심에 기초한 신비스러운 패턴, 아름다운 남양의 색상, 이카트(Ikat), 바틱(Batik), 플랭기(Plangi), 트리티크(Tritik) 등의 테크닉이 뛰어난 제직과 염색기술로 그들 고유문화와 다양한 외국 문화의 영향이 투영된 독특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특정예식용 의복, 종교적, 주술적 목적, 신분의 표시, 예물 교환 등에 사용된 직물은 직물의 크기, 형태, 패턴, 제직의 구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하여 그들 삶을 대변하며 교역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사회, 문화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직물문화 발전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Corresponding author ; Hee-Kyung Koo

Tel. +82-11-9670-0697, Fax. +82-2-6417-0697

E-mail : hkkoo60@hotmail.com

진통직조기법과 텍스타일 디자인의 변형 및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미비한 편이다. 인도네시아와의 잦은 교류, 현지 생산 방식의 확대, 국내 섬유산업의 업종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직물산업과 문화생활, 가치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직물문화의 독창성과 예술성의 한 축을 이룬 인도네시아 직물 문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직물제작기법과 재료, 그들의 삶이 투영된 패턴의 유형별 의미를 통해 문화적, 전통적 역할 및 가치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텍스타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고 및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은 II장에서 국내의 문헌 연구, 선행 연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 제작기법 중 독특한 예술적 기법과 전통문화의 진실한 자료로서 다양한 패턴표현이 된 이캣(Ikat)과 바틱(Batik) 직물에 대한 역사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III장에서 사진 자료와 인터넷에 의해 수집된 사진 자료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전통직물에 표현된 패턴을 유형화하고 특징 및 소재, 색채, 문양의 상징성을 분석한다.

II. 인도네시아 직물의 이론적 고찰

1. 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성 및 역사적 배경

인도네시아는 여러 면에서 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190만 km²의 국토면적, 17508개의 도서가 580만 km²의 광활한 내해에 펼쳐져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 300여 인종이 567종의 언어를 구사하는 2억의 인구,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예부터 유럽인들에게 향료의 나라(Spice Island)로 알려졌고, 가루다(Garuda)의 나라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슬람의 나라다. 스마트라

(Sumatra), 자바(Java)와 발리(Bali) 3개의 섬에 인구의 90%가 거주하며 나머지 섬들은 칼리만탄(Kalimantan), 슬라웨시(Sulawesi)와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에 퍼져 있으며 롬복(Lombok), 슴바(Sumba), 사부(Savu), 로티(깨사), 후로네스(Flores)와 티모르(Timor) 등의 열대섬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문화를 지닌 다 민족 구성 국가로 각기 독특한 직물문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시대에 걸쳐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온 인도의 힌두문화와 이슬람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6세기 이후의 식민지 시대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로부터 서구문화가 들어왔으며 외래 문화의 유입은 섬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적 특질을 만들었다고 한다. 외부문화의 영향은 그들 전통기법에 접목되어 송켓(Songket), 이캣(Ikat)의 직조기법과 방염기법인 프랭기(Plangi)와 트리틱(Triktik), 바틱(Batik)에 의해 표현되고 변화되어 발전되었다. 외부 문화로 인도네시아 직물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문화들은 아래와 같다.

1) 동선 문화 (Dong-son)

BC 7세기경의 북베트남(Annam) 지역의 문화 유입을 말하며 백스트랩(Backstrap) 경사직기와 경사 이캣 직조기술이 소개되었다. 패턴은 생당나무(Tree of life) 마름모꼴, 삼각형, 곡선 나사형 패턴 등이 직물에 표현되었으며 인간과 동물 형태의 기하학적 패턴이 주술적으로 사용되었고 스마트라(Sumatra)와 티모르(Timor)에서 보여지고 있다. 남중국의 이민자들에 초(Chou) 후기 문화가 들어와 비대칭 디자인이 소개되고 칼리만탄(보르네오) 지역에 영향을 주었으며 후기 동선 문화의 영향을 인도 힌두교의 전설 라마야나(Ramayana)와 마합하라타(Mahabharata)의 모습이 와양 파펫(Wayang Puppet) 드라마로 나와 와양 패턴이 자바와 발리에서 이중 이캣(Double Ikat), 바틱(Batik) 직물 등에 보여진다¹⁾.

2) 인도 문화

면사의 사용과 염료의 채취 등에 영향이 나타나

며 구자르트(Gujarat)에서 온 실크로 된 이중 이캣(Double Ikat) 직물인 파톨라(Patola)는 자바와 스마트라에 바스켓 문양 표현을 경사 이캣에 응용하게 되었다. 실크 사용과 기술은 위사 기법 이캣 등 장식적인 직조 기법의 발전을 가져왔다. 패턴에서도 동물문과 꽃 패턴이 소개되었고 힌두사상과 관련된 자연 숭배의 상징의 나선형 문양,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의 나무 등이 중요 모티브로 활용되었다. 직물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 직물의 크기, 색채, 제직 방법의 다양성이 각 계층에 따라 규제되었다. 예를 들면 노예와 종들은 카인(Kain)보다 단색처리된 옷을 입었고 왕들은 폭이 넓은 다색을 사용한 경사 이캣으로 된 망토인 힌지(Hinggi)를 착용하였으며 특별한 힘의 상징과 주술적 의미의 패턴이 장식되어 있다.

3) 중국문화

17세기 인도네시아에 양잠기술을 들여 온 중국 교역자들은 스마트라, 칼리만탄과 슬라 연안에 영향을 주며 불사조 패턴, 만(卍)자형 패턴은 이캣의 가장자리에 패턴으로 사용되고 바틱직물에도 묘사된다. 자바의 블록프린팅 산업(Block Printing)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4) 유럽 문화

19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인도네시아 섬들은 외국의 옷감과 자바의 바틱과의 교역의 장이 되었으며 바틱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실크 파톨라에는 유럽취향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패턴, 사자문양, 네덜란드 군인의 모습 등의 패턴이 자료로써 남아 있다.

5) 이슬람 문화

이슬람의 영향은 모티브와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종교적인 주제에 의한 의식용 직물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금은사로 직물을 장식하는 기법을 심화시켰으며 인간의 모습이 아닌 꽃패턴, 도식화된 새, 기하학적인 패턴, 줄패턴, 체크패턴 등

의 유형, 아랍문자로 새겨진 코란으로부터 인용해 온 글씨문 등이 북자바에서 보여지고 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전통적 직물생산 기법인 이캣직물의 제작기법 및 특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캣직물의 특성

1) 이캣직물의 유래

이캣(Ikat)이란 말레이어로 “Mengikat”에서 묶거나 매다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제직하기 전에 실을 패턴에 따라 방염재료로 묶어 염료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한 후 염색과정을 거치는 기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캣 직물은 앞뒷면의 문양이 동일하며, 방염한 부분에 염료가 스며들거나 염색한 후 제직을 위해 직조로 옮길 때에 실의 변화로 패턴이 조금씩 달라져 실의 방향에 따라 가장 자리가 변진 듯한 부드러운 선의 패턴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캣(Ikat)직물은 크게 방염, 염색과정을 거친 실이 날실로 제직하였으면 날(경사)이캣(Warp-Ikat), 씨실일 경우는 씨(위사) 이캣(Weft-Ikat), 날실·씨실 모두일 때는 경위사 이캣(Double Ikat)으로 구분된다. 소재는 면이나 견이며 이들 소재는 방염재료인 인피, 종려나무, 코코넛 또는 플라스틱 줄에 의해 말아 묶거나 더블넛(Double-knot) 방법 등으로 더 단단하게 묶어 무늬를 표현한 후 제직한다²⁾.

2) 이캣의 제작과정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제작되는 이캣직물은 적색(MengKugu red)과 청색(Indigo blue)으로 염색되며 부분적인 액센트로 황색, 녹색, 흑색 등의 자연 염료를 이용하여 염색·제직되었다.

인도네시아 이캣 직물은 대부분 경사 이캣 기법이며 경위사 직물은 한정되어 제작되었다. 백스트랩 직기로 사롱(Sarong)을 제직하는데서 유래한다. 방염 및 염색과정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① 바탕색이 될 부분을 남기고 패턴이 될 부분은 모두 감아 묶는다. 회계 남을 부분은 한 개, 적색이 될 부분은 두 개, 황색이 될 부분은 세 개의 매듭을 지어 놓는다.
- ② 청색으로 침염하고 가운데 두 개의 매듭진 곳의 방염을 푼다.
- ③ 적색으로 침염하고 세 개의 매듭지어 놓은 부분을 푼다.
- ④ 가운데 세 부분 모두를 황색으로 침염하고 나머지 매듭진 방염을 모두 풀면 완성된 상태이다. 바탕색은 청색과 적색 약간의 황색으로 염색되며 적색과 청색, 적색과 황색, 황색·백색 등의 무늬가 생긴다.
- ⑤ 패턴이 물들여진 두 날실은 따로 따로 정경틀에 걸고 실을 고르게 배열하는 동시에 한쌍의 시침대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날실 사이에 둔다. 이 시침대는 나무껍질로 된 줄이 감겨 있어 여섯 가닥씩 나누어 가면서 끼워 넣는다. 제작은 관 모양의 경사상태에서 짜나가며 다 짜고 난 완성된 직물은 관모양으로, 이것을 잘라서 펼치면 하나의 직물이 된다.

대부분의 경사 이kat(ikat) 직물은 면사를 사용하여 백스트랩(Back-strap)이라 불리는 바디텐션룸(Body-tension, Loom)에 의해 제작되며 위사 ikat(카인 송켓: Kain Sonket) 실크사를 이용, 백스트랩 직기, 말레이직기에 의해 제작한다.

더블이kat직물인 저링싱(Geringsing)은 백스트랩 직기로 제작되며 주술적 보호목적으로 사용된 직물에서 많이 보여진다. 특히 위사 이kat 제작자들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으로 아마도 위사이kat기법이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인도인과 아랍상인이 15세기경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에 따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패턴의 유형과 의미는 Ⅲ장에서 분석, 정리하기로 한다.

3. 바틱직물의 특성

1) 바틱의 유래

인도네시아 바틱이란 염색 시 어느 특정 부위가 염색이 되지 않도록 그 부위로 왁스(Wax) 혼합물

로 덮는 방법을 통하여 직물패턴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틱과 같은 염색방법이 중국, 서아프리카, 동티키, 인도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도에서 자바로 소개되었으리라 추정한다. 1516년 Malabar 해안에서의 기록의 교역품으로 채색된 천(painted cloths)이 바틱이었다고 전해지며 1518년에는 tulis(writing)라는 말이 등장하여 가장 섬세하게 손으로 그린 바틱을 이르는 호칭이 되었다. 바틱(Batik)이란 인도네시아 단어인 ambatik에서 나온 것으로 'a cloth with little dots' 라는 뜻으로 Ba는 baju(옷이라는 뜻)란 말에서 나온 것인 듯 하다. Tik이란 drawing, painting, writing의 뜻으로 little dot, drop의 여러 개의 점을 찍을 때의 의성어라고 볼 수 있다³⁾.

2) 바틱의 제조 과정

바틱의 디자인은 약 3000여 종 이상이며 자바인 족자카르타의 전통적인 바틱과 외국문화의 접촉이 잦아 그 영향이 바틱에 투영된 Cirebon, Pekalongan 등의 북해안 바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패턴의 유형과 의미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기로 하고 바틱의 제조 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4. 전통직물의 종류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복은 열대 기후로 인해 단순한 구성을 가지며 정방형 천으로 구성된다. 의복의 4가지, 주된 형태로는 카인(Kain), 사롱(Sarong), 셀렌당(Selendang), 세리무트(Selimut)를 들 수 있다. 카인(Kain)은 허리와 다리를 둘러싸는 형태이고 사롱(Sarong)은 원통 형태로 꿰맨 좁은 카인으로 만들어지고, 셀렌당(Selendang)은 가슴과 어깨를 두르는 천이고 세리무트(Selimut)는 담요와 같은 망토로 어깨에 두르는 용도로 사용한다⁴⁾.

인도네시아의 직물은 실용적 목적 외에 예식용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며 다양한 패턴의 형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들은 직물을 제작하는 일을 신성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등 영감을 통해 패턴을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의 패턴을 모방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에서 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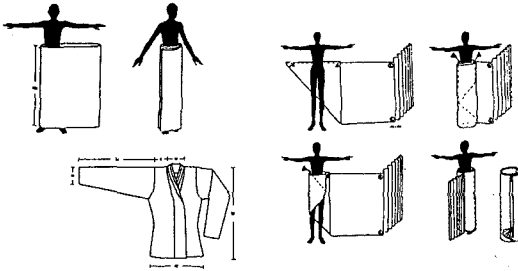
〈표1〉 바틱의 제조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1. 천의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천을 가장자리를 처리한 후 천을 물에 삶은 후 말린다. → 피마자유나 땅콩유에 바나나 줄기를 태운 잿물처리를 한다. → 12인치 넓이로 접어 나무판 위에 놓고 섬유를 Frame에 걸고 연필로 디자인 스케치 → 종이패턴을 천 위에 놓고 그린다. 	⇒	<p style="text-align: center;">2. 왁스(wax)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왁스는 Sumba나 Timur 섬의 beewax가 주로 쓰인다. → Grandarokan과 Kendal(우지)와 함께 섞는다. · 왁스를 만드는 조성비는 바틱작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은 조성비에 좌우됨으로써 그 조성비는 바틱공장의 비밀에 속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3. Can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그리는 바틱을 Batik Tulis라 하며 이때 왁스로 그리는 기구가 Canting이다. · Canting은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대롱(pipe)을 가진 왁스를 닦는 주둥이가 있고 나무로 된 손잡이가 달린 만년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 섬세한 선, 넓은 면적, 여러 점 등의 용도에 따라 Canting을 달리 한다. · 보통 여자 사용한다. 	⇒	<p style="text-align: center;">4. C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40년에 처음 고안됨. · 패턴을 동으로 만들어 Frame을 하고 손잡이를 붙인 stamp와 같은 것이다. · 하나의 완전한 패턴은 Cap의 무늬를 연결시킴으로써 구성된다. · 천으로 된 테이블 위에 천을 놓고 그리고자 하는 천을 놓고 Cap에 왁스를 흡착시킨 후 천에 세게 눌러 왁스자국을 남긴다. · Cap은 Batik Tulis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어 가격은 저렴하나 예술성은 떨어진다.
<p style="text-align: center;">5. 염 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틱은 식물성 염료에 의한 아름다운 색상으로 이국적 패턴을 보인다. · 전통적 4가지 염료 : Indigo의 청색 Morinda Citrifolia 뿌리의 껍피에서 얻어지는 진한 빨강색, Cudriana Javanesis 식물에서 얻어지는 노랑색, Soga라 부르는 독특한 자바인의 갈색, 초록색을 얻기 위해서는 Indigo에 담갔다 노랑색 염액에 다시 담그고, 검정색은 Indigo, Morinda, Soga에 번갈아 담근다. 		<p>(baju kurung)을 입는 경우, 카인과 바주 보도(baju bodo)를 착용하는 경우이다⁵⁾.</p> <p style="text-align: center;">① 남성용 의류 직물</p> <p>남성의 상의에는 크매자(kemeja), 자스(Jas)가 있다. 크매자는 셔츠류를 말하며 자켓이나 양복 상의는 자스라고 칭하여 구별하고 있다. 소재는 두 가지 다 목면이며 최근 자스에는 합성섬유가 쓰이기도 한다.</p> <p>남성의 하의로는 추라나(Celana), 추라나 다람(Celana-dalam), 사롱(Sarung)이 있다. 추라나는 일반적인 긴바지를 말하는 인도네시아어이고 추라나 다람은 반바지나 팬티류이다. 머리에는 정방형의 보자기 같은 카인 케파라(Kain kepala)라는 바틱을 터번 모양으로 감고 묶거나 하고 이 천을 꿰매어 모자 모양으로 만든 부랑콩(bulangkong)을 쓴다. 흑비로오드의 땀이 없는 모자처럼 생긴 송코(Songkok), 이슬람 교도만이 쓰는 코피아(Kopiah) 등의 모자를 쓰기도 한다. 남자는 카인(사롱)을 두르거나 바주와 카인 위에 무릎길이의 도돈(dodot)을 하거나 더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장식의 목적도 있으나 실용적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p>

다른 부족들의 독특한 패턴이 형성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다음은 용도에 따른 전통직물의 구분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1) 의류용 직물

오늘날 카인(Kain)과 꼬바야(Kebaya)가 인도네시아 대다수 국민들이 즐겨 입는 의복이며 1950년 인도네시아 독립을 계기로 다수의 도시,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일환으로써 카인과 꼬바야를 국민복으로 정해 민족복으로 착용되고 있다. 대개 4개의 범주로 사롱을 카인이라 하여 상의없이 카인만을 입는 경우, 카인과 꼬바야 혹은 바주 판장(baju panjang)을 착용하거나, 카인과 바주 꾸릉



〈그림1〉 인도네시아의 사롱
출처 : 인도네시아의 의복문화

상류층의 남자들은 송켓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쓰고 이마에서 묶는다. 이것을 페라다(perada)라고 하며 예복에서 신랑은 수수한 색의 카인 위에 송켓 카인을 덧 입는데 속에 입는 것은 와스트라(Wastra)이고 겹에 입는 것은 사뿌(Saput), 캄뿌(Kampuh)라고 하며 머리에는 페라다를 쓴다.

② 여성용 의류 직물

자바섬 여자의 평상복은 민속복인 카인(사롱)과 상의로써 꼬바야를 착용한다. 착용법은 먼저 상반신에 코탄(kotan)이라는 가슴가리개를 하고 카인을 입은 후 스타젠(Stagen)이라고 하는 폭이 좁은 긴 천으로 몇 번 감아 안전핀으로 고정한다. 그 위에 꼬바야를 입고 긴 스톨(Stole)이나 솔에 해당되는 스텐당(Selendang)을 걸친다. 스텐당은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걸쳐 장식적인 요소로 착용되며 물건이나 어린아이를 안고 입을 때도 사용한다. 여자의 축제의상이나 예복에는 카인 대신 넓은 바틱직물의 카인 판장(Kain panjang)을 착용하고 꼬바야를 입는다.

2) 의식용 직물

인도네시아에서 직물을 보호의 의미로 지붕에

걸리거나(푸아: pua) 혼례용 선물, 농경축제 때 가축을 덮는 덮개, 죽은 자를 위한 장막, 절의 행사에 쓰는 깃발(라막) 등에 사용되며 특정한 직물의 패턴이 영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재예식에 중요한 부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저링싱(Gerinsing)은 발리에서 만들어지는 더블 이kat 직물로 특별한 보호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규적 예식이나 장례식,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한다⁶⁾. 주로 꽃과 기하학적 패턴이 주류를 이루며 와양(Wayang, Kebo), 와양 푸트리(Wayang Putri)로 와양인형모습, 사원문양 등의 패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용 덮개인 푸아쿰부(Pua kumbu), 죽은 자의 집벽에 늘어뜨리던 플릴론종(Porilonjong), 큰 사각형 직물로 장례식의 장막, 시신을 덮는 덮개, 장례손님을 위한 보호소를 만드는 데 쓰이던 세코만디(Sekomandi) 등을 들 수 있다.

Ⅲ. 전통 직물에 표현된 패턴의 유형과 의미

인도네시아 직물은 실용적 목적 외에 사회적, 관례적 생활에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하며 직물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물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2>과 같다.

인도네시아인들에 있어 직물의 패턴은 외부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하나의 표시이며 자연과 신화에서 유래한 것, 토속적인 민속에서 유래한 것, 외국문화에서 유래한 것이 있으며 그 형태로 보아 크게 기하학적 패턴, 비기하학적 패턴, 인물형 등으로 나누어 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소재, 기법면에서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kat, 바틱의 직물에서 표현된 패턴을 자료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직물패턴은 모티브라 할 수 있는 패턴 기초요소들이 반복되고 종합되어 하나의 반복 단위 패턴(Repeated Pattern Unit)을 이루고 이들 단위패턴들이 반복되어 전체 패턴을 이루기에 수집된 사진자료와 Sample에서 표현된 패턴을 오브제를 중

〈표2〉 직물의 상징적 의미

상징	의미	표현된 패턴
이원론적 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위사의 삶을 경사는 지배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위사는 변화의 다양성 우주를 신과 조상을 의미하는 윗세계 땅과 다산을 의미하는 아래세계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와 날아다니는 창조물, 윗세계 외신, 영혼, 선조 아랫세계-물고기, 도마뱀, 신비스런 동물
조상과 영혼의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의 조화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재예식을 통해 자신의 영력을 높이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모습과 종족에서 신성시 여기는 동물의 도식화된 패턴→푸아(Pua) 인간의 신체를 사실적 묘사, 정면을 바라보는 형태의 패턴
죽음과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례용직물,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예식용 의복으로 마술과 영적인 힘의 대상→신성한 직물, 죽은 자를 위한 신분의 상징 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양 패턴, 말을 탄 인간의 형상, 배문양 게링싱(Gerringsing) : 인도에서 나온 코끼리, 양식화된 꽃패턴, 기하학적 패턴, 배모양의 두라(Dura)
보호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앞에 걸거나 구조물 아래에 설치하여 보호하는 중요한 힘이 있다 믿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상화된 패턴인 동물 문 의인화된 형상 경사 이kat, 스트라이프패턴
다산과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과 농작 예식에 직물의 패턴을 상징적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조들의 모습, 가축들의 패턴 보호신의 패턴화, 들소뿔패턴 남·녀의 생식기 상징 패턴, 초생달패턴, 태양이미지 고대사방형+삼각형문양의 보더 패턴, Doti Langi(하늘의 별)
부와 명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직물의 특별한 제작 과정과 독특한 문양제작비에는 비밀로 지켜 가문의 부와 명예를 상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하학적인 별과 원의 변형 묘사, 버팔로 형태의 동물 가루다를 포함한 새 날개가 있는 사자 중국영향의 용, 뱀 형태

심으로 구분한 결과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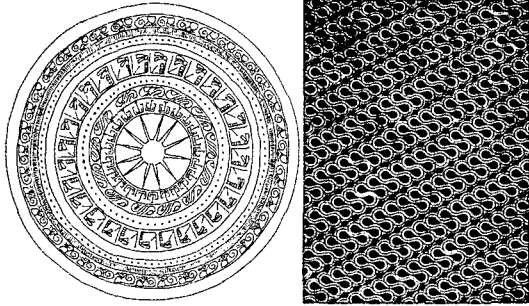
1. 기하학적 패턴 유형

기하학적 줄무늬, 나선무늬, 커브형, 지그재그(Zig-zag)로 이루어진 케케마하바(Kekamahaba) 문, 평행선, 포도나무덩쿨 등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별모양이 어우러진 패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영향과 각 부족들의 고유한 형태가 결합된 기하학적 패턴의 의미는 계속 재해석되고 변형되어 의식용이나 예식용에 즐겨 사용되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 나타나고 있다. 검(Keris)의 패턴으로 사용되던 파랑(Parang) 패턴은 통치자가 즐겨 쓰던 패턴으로 불운을 쫓으며

환자를 치료하는 수술적 상징의 의미가 있다.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한 Parang Rusak와 정교한 다이아몬드 패턴이 사원 패턴과 조화를 이루며 실크 위사 이kat이나 바틱(Batik)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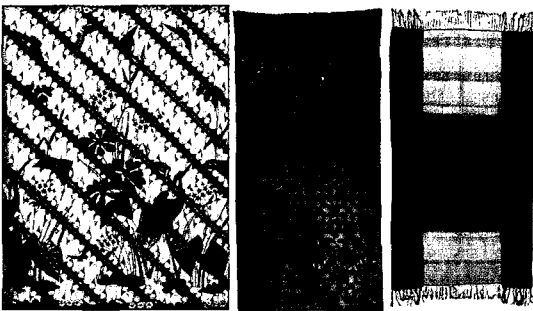
신성하고 질서 정연한 우주를 상징하는 Sugar-palm 열매의 단면과 같은 연잎의 도안화된 기하적 패턴들은 Kawung 이라는 패턴으로 표현되며 Cemukiran 이라는 Parang과 비슷하나 연꽃을 기하적으로 정리하여 보더 패턴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농사의 풍작을 상징한 기하학적 패턴은 대각선으로 배열한 Udan liris 패턴 등이 있다.

갈쿠리 형태와 마름모, 화살모양, 삼각형, 지그재그 혼합한 패턴을 세곤(Sekon), 바롱신(神)의 보호 이빨로 알려진 흰색 화살머리 문양의 지지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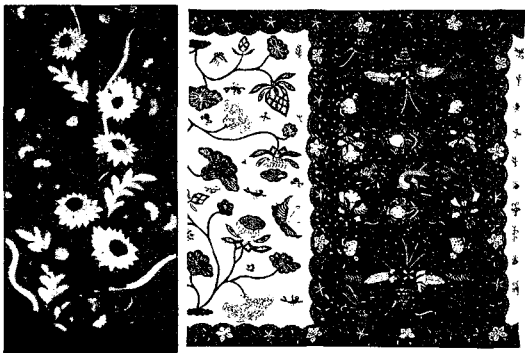


〈그림2〉 Dong-son 문화의 영향으로 사용된 기하학적 패턴
 〈그림3〉 Kain Panjang의 Parang pattern

출처 : Traditional Indonesian Text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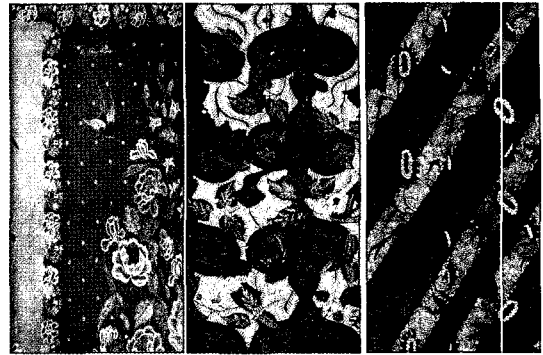
〈그림4〉 배경으로 사용된 Parang
 〈그림5〉 다산과 부와 명예의 상징인 Ma'a cotton
 〈그림6〉 울로스레지드업 (ulos ragidup)



〈그림7〉 tulis batik의 플라워 패턴
 〈그림8〉 tulis sarong의 중국 영향에 의한 식물 패턴

롱(Gigibarong) 등의 기하학적 패턴을 통해 사회 계층, 주술적 의미의 강한 전달성을 표현하고 있다.

버팔로의 가죽우리와 별패턴의 상징으로 구성된 기하적 패턴이며 〈그림6〉은 바타지역 남자들의 결혼이나 장례식에 착용한 울로스(Ulos)로서 선물교환의 품목으로 통행 관습을 위한 중요한 예식에



〈그림9〉 플라워 패턴과 floral borders
 〈그림10〉 유럽영향으로 보이는 식물패턴 (나뭇잎과 만돌린)
 〈그림11〉 플라워와 나뭇잎 모티브의 식물패턴 : tulis batik

사용되었다. 울로스 레지드업(ulos ragidup) 직물은 혼례식 때 사용된 생명의 문양을 지닌 천으로 신부 아버지가 신랑 어머니에게 선물하여 신부 집안의 부와 신분을 강조하였다⁷⁾. 기하학적 패턴을 가장 많이 쓰인 직물 패턴으로서 원형은 예전 토속민족 때부터 존재하며 계속 재해석되고 변형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표현된 대표적 패턴이라 해석된다.

2. 식물패턴 유형

Pekalongan에서 보여지는 꽃 패턴은 기하학적 패턴과 백로, 별새, 나비 등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며 네덜란드나 중국의 영향으로 데이지, 국화, 페이즐리 등이 tulis batik sarong에 밝은 빨강, 전통적 청색, 빛나는 노랑, 파스텔조의 초록라 일락 등이 보인다. 중국도자기 문양에서 따온 부케패턴과 핑크색은 중국의 선호색으로 행복, 영원 불멸, 행복한 결혼관 등을 상징한다. 결혼의식에서 래지호탕(Ragi Hotang)이라는 등나무 패턴이 표현된 셀렌당을 신랑에게 주어 신부쪽의 신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풍성한 결실 및 농작물의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던 모티브들이 네덜란드 지배하에 놓이며 플라워 패턴등의 식물문이 주로 부케(buketan) 패턴, 네덜란드의 꽃들과 과일, 유럽의 카드놀이, 유럽의 동화모티브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과 환경에 순응하고 경외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순박함과 더불어 변형·융합된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12〉 인간과 동물 구성의 패턴

〈그림13〉 중국 정원의 사자와 신비스러운 동물 패턴



〈그림14〉 중국의 영향을 받은 모티프(사자, 구름)의 패턴

〈그림15〉 불사조의 동물 패턴

〈그림16〉 자바의 학모티프의 패턴

3. 동물패턴 유형

인도네시아 전통직물의 패턴은 직물 표면에 부가되어 그들의 삶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패턴의 상징성은 전쟁예식, 죽음과 삶의 상징, 보호, 선조와의 의사소통의 강력한 힘으로 표현되고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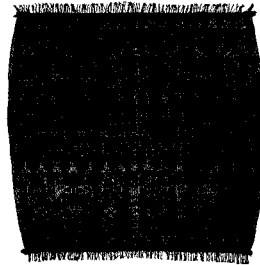
새와 날아다니는 창조물은 윗세상으로 신과 영혼의 선조를 나타내며 물고기, 도마뱀과 악어는 땅과 다산의 뜻을 지닌 아랫 세상으로 윗세상은 남성의 요소로 밝음, 외부, 오른쪽 해와 삶을 뜻하며 여성의 요소인 아랫세상은 어둠, 내부, 왼쪽, 달과 죽음을 의미한다⁹⁾. 또한 특정한 동물패턴은 귀족계급의 상징으로 쉼바(Sumba) 귀족계급의 직물에서 닭, 수탉, 사슴 등이 보여지고 통치자의 권력을 대표하는 새우, 악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¹⁰⁾. 전쟁예식이나 사냥 예식에 사용되는 남성의 술과 랩에서 말 패턴을 친숙히 사용되며 힝지콤부(Hinggi Kombu)에서 보여지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 형상, 동물 패턴의 의인법적 형상이 죽은 자를 내세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토속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왕궁의 모티브인 중국의 사자, Naga용 패턴, 이슬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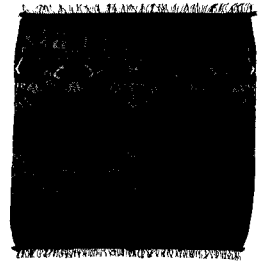
〈그림17〉 이슬람의 영향인 닭 모티프의 동물패턴



〈그림18〉 신비스러운 새 가루다(Garuda)의 날개패턴



〈그림19〉 코끼리를 타고 있는 인물패턴과 손을 든 사람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인물형 패턴



〈그림20〉 Sumba의 hinggise 표현된 산악부대원들의 pattern

향으로 나타난 닭, 낙원으로 가는 문지기라는 공작, 불사조, 이슬람새, 힌두의 코끼리, 용, 뱀 등을 혼합시켜 활기참, 강함, 인내 등을 상징한 Singa Barong 등을 통해 그들의 외부문화와 융합된 우주와 죽음, 삶에 대한 초자연적 가치관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그 외에도 공작, 학, 원숭이들의 패턴도 보여짐).

자바 바틱(Batik)에서 표현된 신비스런 새 가루다(Garuda)나 가루다의 큰 날개를 패턴화한 Sawat 패턴은 반독수리 반사람의 형상인 힌두신 Vishu를 하늘로 옮겼다는 새의 모양을 딴 패턴이며 왕관 등 최고 권력을 상징한다¹¹⁾.

4. 인물형 패턴 유형

기도하는 자세로 팔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날개가 달린 동물을 타고 있는 인체, 말들과 싸우는 청년의 형상, 병사의 모습 등이 기하학적 패턴과 스트라이프 등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다산의 상징인 인두문이 동슴바의 로인크로스(Loin Cloth)나 셀렌당에 보여지고 사람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신인 동형문(神人同形紋)의 인물형 패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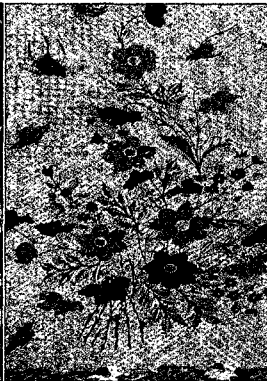
〈그림21〉
와양(Wayang) 패턴



〈그림22〉 와양(Wayang) 인형들과 batik sarongs
와양클리트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연극



〈그림23〉 Patchwork pattern



〈그림24〉 비탈의 관(만)자문 패턴

인도네시아 전역에 내포된 기본적인 모티브라 하겠다.

5. 와양 패턴(Wayang)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인형극인 와양 클리트(Wayang Kulit)에 등장하는 인형의 모습을 패턴화한 것으로 토속적 신앙 형태에서 출발하여 외부의 종교영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왕조와 귀족토의 조상신이었던 와양은 역사와 더불어 전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조상신이자 수호신으로 인도네시아 문화 전반에 와양이 활용되고 있다¹²⁾.

와양패턴의 친들은 일상복으로서의 용도보다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패턴의 소유를 통해 사회적 지위 등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와양패턴은 자바(Java)의 바틱(Batik) 염직물, 발리(Bali)의 위사 이캣(Weft Ikat)과 더불어

이캣(Double Ikat)인 저링싱(Geringsing)에 주로 나타나며 인형의 모습은 140여 종에 이르며 고귀하고 선한 인형과 포악하고 악한 인형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고귀하고 선한 것은 코가 길고 아름다우며 얼굴이 약간 위를 향하고 눈은 조금 길고 가늘며, 머리는 작고 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포악하고 악한 인형은 코가 눈에 띄게 풍성하고, 얼굴은 둥글며, 턱은 아래로 처지고, 코는 앞이 튀어나오고 위로 구부러지고 큰 눈을 가지며 입은 어금니를 드러내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와양 케보(Wayang Kebo), 와양 푸트리(Wayang Putri)의 디자인이 대표적이며 인도네시아인의 문화와 삶을 대표하는 상징적 패턴이라 생각된다.

6. Patch work 형태의 패턴

다음은 동물문과 식물문의 패치워크(Patch work) 형태로 구성된 패턴인 Tambal을 분석한다. 조각보 디자인으로 병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가져다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미의 직물 패턴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바틱 패턴에서 많이 보여지며 최고의 섬유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문자 패턴 유형

이슬람의 영향으로 잠비(Jambi)에서 만들어진 구도자를 위한 천과 스마트라와 팔렘방에서 생산하는 바틱과 ikat 직물에 코란(Koran)으로부터 인용해 온 글자체는 쇼올, 머리두건 및 장식품 등에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중국의 영향으로 보이는 만(卍)자형의 반지(banji pattern) 패턴이 있다.

그 외 기타로서 Maga 중국의 영향으로 나타난 구름 패턴으로 반은 개, 반은 사람, 반은 사자, 반은 사람을 형상화한 Kylih pattern 등이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인도네시아의 전통직물은 사회적, 관례적 생활에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하며, 삶의 표현이며, 문화를 대변한다. 그들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하던 존재나 자연이 패턴으로 구성되어 표현됨으로써 예술작품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는 고급 면직물 생산국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지리적 특성과 역사는 직물 패턴의 다양성과 전통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나 인도네시아인들은 토속적인 것과 외래문화의 영향을 그들 직물 패턴으로 수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직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 세계 직물 문화의 독창성과 예술성의 한 축을 이룬 인도네시아 직물 문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직물패턴 표현기법과 그들의 삶이 투영된 패턴의 유형별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의 패턴은 인도네시아인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의 상징적 표현이며 신화에 나타난 신의 형태, 생활주변에서 보여지는 동식물문 등의 존재를 이카트(Ikat), 바틱(Batik), 플랭기(Plangi), 트릭틱(Trikik) 등의 제직과 염색기술에 의해 제작되었다.

둘째, 패턴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속에 인도, 이슬람, 중국, 네덜란드 등의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은(ex: 인도의 가루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불사조, 용, 뱀, 이슬람의 영향인 공작과 불사조 등) 패턴들이 종교적 상징패턴으로 재구성되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셋째, 패턴 유형은 기하학적 패턴, 식물패턴, 동물패턴, 인물형 패턴 유형, 와양 패턴, 패치워크 패턴, 문자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패턴의 의미는 재해석되고 변형되어 의식용, 예식용, 생활용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지생산 방식을 통한 섬유산업

합작 파트너로 기대되는 나라이다. 직물 문화를 통한 그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패턴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심층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Maxwell, R. (1990). *Textiles of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67-75.
- 2) Gillow, J. (1995). *Traditional Indonesian Textiles*. London: Thame and Hudson, pp.13-20.
- 3) Gittinger, M. (1980). *Indonesian Textiles*. Bangkok: Kendall/Hunt Company, p.193.
- 4) Gillow, J. (1995). Op. cit., p.62.
- 5) 양승윤 (1994). *인도네시아*.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9.
- 6) Ibid., p.11.
- 7) Ibid., p.61.
- 8) Gillow, J. (1995). Op. cit., pp.113-120.
- 9) 예술장르로 승화된 인도네시아 직물의 백미 (2002. 01. 01). 자료검색일. 2005. 10. 2. 자료출처 <http://www.skynews.co.kr>
- 10) 인도네시아의 알라스 쿨루에트 (Alas-Kluet Batak). 자료검색일. 2005. 10. 2. 자료출처 <http://www.kcm.co.kr>
- 11) 인도네시아 바틱 (Batik). 자료검색일. 2005. 10. 3. 자료출처 <http://www.paradisetour.net/companyindo>
- 12) 고승길 (1995). *와양(Wayang) 쿨리트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연극*.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p.24.
- 13) 의상디자인 연구회 편 (1992). *세계민속의상과 패션*. 서울: 학문사.
- 14) Harris, J. (1993). *5000year of Textile*. London: British-Museum Press.
- 15) Hitchcock, M. (1991). *Indonesian Textiles*. London: British-Museum Press.
- 16) Sylvia Fraser-Lu (1988). *Handwoven*

Textiles of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 Kax, W. (1979). *A History of Textiles.*

Colorado: Westview Press.